

SW수출활성화 시스템 운영



내수 위주의 국내 SW기업이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도록 SW 수출 활성화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지식경제부가 밝혔다. SW수출은 '08년 57.2억불로 외산이 대부분인 임베디드 SW를 제외하면 생산대비 수출이 4% 미만이다.

단계적 접근이다. 협소한 국내시장을 벗어나 규모가 큰 선진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분석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한 것이다. 美, 日, 獨, 英, 佛, 伊 시장은 6천억불 규모로 국내시장(81억불)의 76배(임베디드SW 제외)이다.

우선, 가장 큰 시장인 미국(34백억불), 가까운 일본(7백억불) 및 해외 공공SW 시장 분석정보를 제공하여 국내 SW기업이 자사 실정에 맞는 진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중국, 유럽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오픈타이드), 일본(노무라연구소), 해외 공공SW(인터젠) 시장분석 중('09.10~12월, 3억원)이며, 향후 시장분석을 확대('10년 5억원)하고, 美·日 KOTRA IT센터 SW마케팅을 강화('10년 8억원)한다.

대·중소 협의체이다.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대·중소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협의체 당 3~5천만원 지원)

대·중소 협의체의 구성·운영 지원과 함께 동 협의체에 대한 해외마케팅, 타당성조사, 수주지원단, 초청연수 등 지원 사업('10년 29억원) 선정 시 우대 혜택을 부여하여 실효성 있는 해외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올해 우선, 시범적으로 동반진출 효과, 진출 가능성, 수출 준비도 등을 평가·선정한 국가세

정시스템(대우정보통신), 통합관계시스템(새한정보시스템)에 대한 대·중소 협의체를 지원키로 하였고, '10년 상반기에 패키지SW, IT서비스, 임베디드SW 등 SW 소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2개 협의체를 추가 공모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진출협의체이다. 기 설립('07.8)되어 활발하게 운영되는 「한일IT경영협의회(KJIT)」와 함께, 유사한 협력 모델을 미국으로 확대한 「한미IT경영협의회(KAIT, 가칭)」의 신설('09.12.23)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나모인터랙티브, 한글과컴퓨터 등 22개 중소SW 기업이 참여한다.

글로벌협력이다. 또한, 히타치, 후지쯔 등 국내에 진출한 100여개 글로벌 기업이 자사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중소 SW기업의 우수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상생협력의 활성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글로벌 기업이 주도적으로 국내 SW제품을 수출하도록 하고, 수출용 SW제품의 경쟁력 제고

를 위한 품질개선, 현지화 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년 10억원 내외)

한편, 지식경제부와 한국SW산업협회는 이러한 SW 수출 활성화 시스템의 업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0 SW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에서는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OTRA, 수출보험공사가 SW수출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국가세정시스템(대우정보통신), 통합관계시스템(새한정보시스템) 대·중소 협의체 정식 발족과 함께, 발족 예정인 KAIT(가칭)의 향후 활동방향 소개가 있었다.

한미IT경영협의회는 운영방향으로 참여 업체 간 지속적으로 공동마케팅, 정보교류, 국제협력 등 진행한다. 나모인터랙티브 등 미국내 판매망을 갖춘 기업을 통하여 판매, 또는 HW에 번들 형태로 진출하는 공동마케팅 등 검토한다. 향후 계획으로 2010년 사업계획 수립 및 정식 발족하고, 재미교포 IT기업인 등을 활용한 미국내 지원조직(AKIT)을 확보('10上)할 것이다.

